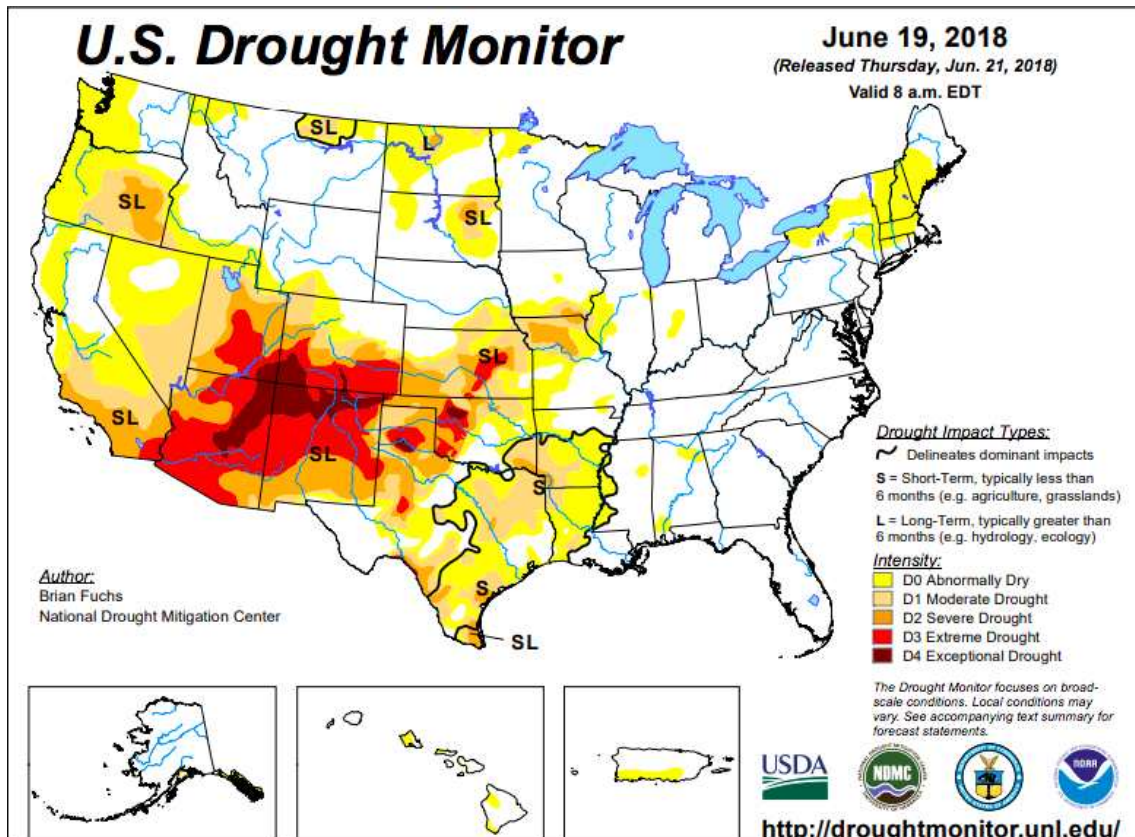


6월 2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26)

□ 미국 기후 현황(6/17~6/23)

걸프만 연안 서부 지역에서는 비로 농경지 등이 침수되었고, 텍사스 남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이번 비로 가뭄이 해소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중서부 일대에서도 많은 비가 연달아 내렸다. 한편,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북부 등에서는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해 100,000 에이커가 넘는 임야가 불에 타고, 50여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은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북부 내륙 산간지역 등에서는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를 유지했다.



## □ 농업 현황 요약(6/18~6/24)

네브라스카와 와이오밍 등 북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6°F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과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10°F를 기록하는 등 더운 날씨를 보였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과 텍사스 등에서는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6/17~6/23)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유럽대륙 서쪽 지역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스페인 중부와 남부, 독일 서부 및 이탈리아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잉글랜드 북부와 아일랜드, 이베리아 반도 북서부 등에서는 한때 10~5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스페인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남동부 유럽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4°C 가까이 높은 날씨를 보였다. 헝가리와 그리스에서는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생장이 평년에 한 주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구소련(서부):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 반면, 서부 일대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렸다. 흑해 주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3~6°C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는데, 겨울밀은 빠른 생육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확량 전망은 밝지 않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6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러시아 Southern District의 남부 및 중부, 러시아 중서부 지역 등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0°C를 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토양 수분량이 낮아지고 있다. 서부의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는 한때 10~65mm 내외의 비가 내리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도 지난 60일간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여름 작물의 성장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겨울밀 수확작업은 비로 인해 지연되었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지난 30일간 누적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 비로 이 지역 일대의 여름작물 및 벼의 생육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enan, Anhui, Jiangsu 등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수확량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평년에 비해 적은 비가 내렸던 북동부 지역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옥수수와 대두의 생육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남부 지역에서는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반도 일대의 지난 한 달간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서호주 일대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남호주, 빅토리아 북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겨울작물의 발아 상황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 수확량 전망도 밝은 상황이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C 정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했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uenos Aires 일대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10°C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Formosa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오르고 있다. Chaco 등 북부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영하 2°C까지 내려가는 등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1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65%, 98%를 기록했다. 한편, 겨울밀 파종률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주요 농업지역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한두 차례 내렸다. Parana 북부에서부터 중서부의 Mato Grosso, Tocantins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Rio Grande do Sul 남부에서도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8일 기준 밀의 파종률은 87%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6월 21일 기준 밀의 파종률이 70%로 나타났고, Mato Grosso에서는 6월 22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이 13%를 기록했다.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